

교회소개

교회 VISION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우선으로 아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목회 철학

교회의 존재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속도(speed) 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direction) 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진정 큰 교회입니다.
 (형제 교회들의 영적네트워크를 통해 뉴욕을 변화시키는 교회)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 문신언 (917.603.6086)
 moontcpc@gmail.com

예배팀 | 최재훈 집사 (917.459.1831)

전도팀 | 이재임 권사 (347.256.2821)

미디어 간사 | 김기훈 전도사 (917.332.7939)

선교팀 | 황일환 집사 (917.957.6976)

교육부 간사 |

친교팀 | 이지혜 집사 (360.870.2114)

영유아유치부: 김소연 간사 (646.203.3001)

미디어팀 | 임찬미 성도 (347.806.7881)

유초등부: 백다니엘 간사 (917.517.0813)

총무팀 | 엄영민 집사 (917.963.0933)

중고등부: 우영제 간사 (510.499.9624)

주소 | 25-44 Francis Lewis Boulevard
 2nd FL. Flushing, NY 11358

이메일 | crosschurchofny@gmail.com

전화번호 | 917.410.1157

website | thecrosschurch.org

교회헌금 pay to the order:
 "The Cross Presbyterian Church"로
 써주시면 됩니다



주일 1부 예배 | 9:00AM (교사예배)

주일 2부 예배 | 10:30AM

인도자: 문신언 목사

찬양	민완의 왕 내 주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다 *임재	다함께
* 고백기도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 찬송가	27장 - 빛나고 높은 보좌와 (새찬 27장)	다함께
헌금		다함께
광고		인도자
찬송가	147장 -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새찬 149장)	다함께
성찬식		다함께
대표기도		임찬미 성도
설교	여호수아 (5)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 져야합니다. 여호수아 6:1-5	문신언 목사
축도		문신언 목사

* 모두 일어서서

예배위원

Date	대표기도	헌금위원
10/13	이지혜 집사	신찬양 성도
10/20	황현숙 집사	강상수 성도

목사님 칼럼

제목: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동전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살다 보면 집에 동전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집에 쌓여있는 동전을 처리해야겠다 싶어서, 은행에 들러 동전을 동그렇게 쌓을 수 있는 커버를 가져다가 각 동전 별로 채우고 가져갔더니, 은행 창구에 있던 직원 분이 제가 커버 마다 동전을 너무 많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Quarters \$10 라고 쓰인 종이에 25센트 짜리 동전을 \$10이 되도록만 쌓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딱 맞게 채우면 무조건 \$10가 되겠거니 짐작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원래 넣어야 할 동전보다 더 많이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쌓아보니, 정말 그 종이에 가득 채우지 않고도 25센트 짜리 동전을 그 금액에 맞출 수 있었던거구요.

속으로 그 은행직원이 저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았을까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행에 동전을 다 입금하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내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더 많은 가능성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의 제한된 생각 때문에 그 많은 은혜의 가능성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지요. 그날도 저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런 실수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저는 그 동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수가 꼭 100%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길게 보았을 때는 유익한 경험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날 저도 제 자신이 어떤 틀에 맞추어진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전 부인양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의 내가 느끼는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 첫 느낌 그대로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떨지 우리는 모르고,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그 사람 또한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은혜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은혜'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 아닙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오픈하는 멋진 삶 사시는 뉴욕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1. **"The Bible" (주일 성경공부) 안내:** 오늘 부터 성경인물 시리즈 시작합니다.
2. **주일 친교안내:** 예배후 식사 관련 도움을 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친교팀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3. **성찬식 안내:**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의미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기념함으로써, 한 달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4. **성가대모집:** 찬양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성가대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팀장에게 문의)
5. **교회 홈페이지 오픈:** thecrosschurch.org
6. **임명:** 미디어 간사 - 김기훈 전도사 / 성가대장 - 이지혜 집사
7. **전교인 야외예배 (10/13 주일) - 10:30 예배시작**
Alley Pond Park 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오셔서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10월 주요일정**
 - 1) 심방시작: 이번주간 부터 심방을 시작합니다.
 - 2) 노방전도: 둘째주간 부터 시작합니다.
 - 3) 목장편성: 10월중 새로운 목장 편성합니다.

교회기도 제목

1. 서로를 축복하고, 매주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며,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2. 주일예배와 주중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장소가 준비되게 하소서

헌금자 명단

주일헌금 | 이재임 강응길 문찬빈 한선영 엄금자 문유빈 김수민 문신언 우영제 신찬양 이유희 최재훈 윤순자 무명
십일조헌금 | 김경희 임예인 황일환 엄영민 김소연 임영광 김선아 이지혜 이재임 박용숙 최재훈 이민욱 이하린 윤순자 무명
감사헌금 | 유명준 천성미 황노아 박용숙 이온유 이민욱 이하린 전숙희 무명
선교헌금 | 이온유 이민욱 이하린 윤순자
건축헌금 | 최재훈